

 금융위원회	<h1>보도참고자료</h1>			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
책임자	금융위 산업금융과장 선욱(02-2100-2860)	담당자	배수찬 사무관 (02-2100-2863)	

제 목 :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금융공공기관 불이익이 없도록 경영평가 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.

1. 기사내용

- 데일리안 4.2일자 기사 「신보 노조 “긴급지원 와중에도 한가한 평가늘음” 무대책 정부 비판」 제하 기사에서
 - “협의회는 이에 현 코로나 사태에 걸맞게 기존방식의 경영평가를 중단하거나 코로나19 대응사업으로 지표를 변경하는 등 목적사업 중심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.…… 금융당국은 이를 명심하고 당장 속도를 높일 비상한 대책, 현장에 맞는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.”라고 보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
- 금융위원회는 ‘20.3.24일 「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」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
 - ‘20년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지 수익성 항목(12/100점 : 이익 목표달성도, ROA지표 등)은 제외하고, 코로나19 관련 정책금융 공급실적을 최우선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
 - 아울러 4.1~2일 기간중 금융회사 일선창구 현장 지원 방문 과정에서도 일선 창구 금융사 직원도 기관 경영성과 평가제도 보완 요청이 많았음

- 정부는 금융회사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성과평가제도가 운용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음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출처표시	본 자료를 인용 보도 할 경우 출처를 표기 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	 질병관리본부 콜센터	 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
--	-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